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아서 23:1-6	제2독서	에페소서 2:13-18	복음	마르코 6:30-34
--------	------	-----------------	------	-----------------	----	----------------

농업을 포기한 사회, 목자 없는 양들

통계청에서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림수산물부에서는 치적으로 홍보했지만, 농촌 지역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농가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득 구조가 더 열악한 1인 농가는 제외된 결과이며, 소득이 증대했다지만 농가 부채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1천만원 남짓 하는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20%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직불금을 비롯한 농외소득이 많다고들 하지만 이를 더해도 도시 근로자 소득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농촌소멸, 생태위기, 식량안보 등 더 큰 국가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도 부수고 살림마저 거덜내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농업은 희생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는 외국의 압박이 커졌습니다. 수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은 다시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농업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을 유지, 보호하고자 막대한 지원과 보조금을 쏟는다는 사실은 외국의 공업화된 대형 농장의 이미지에 가려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농업은 “수입농산물과 경쟁해라” 혹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규모를 늘려라”와 같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난 반세기, 우리 농업 정책의 결과가 현재의 절망적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과 경쟁’이라는 논리만으로 세상을 바라왔습니다. 농업과 환경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세대에 접어들지 오래입니다.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살이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척박함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토양과 수자원을 관리하여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도 합니다. 더구나 생태순환질서를 존중하는 유기농업은 토양 내에 탄소를 저장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정착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유기농업은 생산자와 생산 단계만이 아닌, 소비자를 비롯하여 건강한 지역 공동체와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우리가 사는 지역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껏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재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곧 생태적 회개이며, 농촌지역에 사는 우리(부터 시작해야 할 실천입니다.)들의 실천 과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 한없이 품고 베푸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누구일까요? 늘 희생을 당했고 이제는 외면당하고 있는 농민, 농업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얻지 못해 근심에 쌓이고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쉬운 것 없고 마음 편한 사람들은 어떨습니까?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모르는 이들 역시 목자를 잃고 헤매는 이들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만족하나 공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모르는 이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농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질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 부르시는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겠지요?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나주)	
7월23일(화)	연중 제16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교무금	\$ 1,170.00 \$ 1,680.00
7월24일(수)	연중 제16주간 수요일	오전 8시	성물방 자선비	\$ 44.00 \$ 10.00
7월25일(목)	성 야고보 사도 축일	오후 7시30분	성소후원 기타수입	\$ 35.00 \$ 32.00
7월26일(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오전 10시		
7월27일(토)	연중 제16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2,971.00
7월28일(주일)	연중 제17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2명 성인: 158명
교무금 봉헌자	이호영(1-12)최재진(7-8)신영후(5-7)김호성.김진태(6)윤재경.김평옥.전우성(7)			

성인열전: 성 야고보 사도

7월 25일은 성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 첫 순교자이자 스페인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야고보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오 복음 4장에는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아버지 제베대오는 배를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문의 별장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가진 것을 모두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제자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현장(마르 1, 29-51)에 있었던 사람도,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는 기적(마르 5,35)을 목격한 사람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함께 ‘천둥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불살라 버리자” 고 말할 만큼 과격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산티아고 순례길’ 은 사도 야고보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산티아고’ (Santiago)는 성 야고보를 뜻하는 스페인어입니다.

야고보는 스페인 서북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립한 뒤 팔레스티나로 돌아갔다가 참수됩니다. 제자들은 야고보의 유해를 스페인으로 옮겼다가 사라센인들의 침략 기간에 잃어버렸는데, 서기 800년경 되찾아 다시 콤포스텔라로 이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가 바다에 빠졌는데 가리비 떼가 달라붙어 보호해 주면서, 가리비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것은 1189년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예루살렘과 로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오늘날까지 천 년을 이어오는 순례길이 되었고, 또한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이 힘 기자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정세진 아멜라 영육건강	오미경 마리아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이경임 루시아 건강회복	9구역
연	김초지 마리아 영혼	송명자 아가다	생	서형진 아브라함, 장영주 카타리나 영육건강	정두용 프란치스코
연	김승진 시몬 영혼	김흑자 안젤라			
연	원건호 스테파노 영혼	김일주 안나	생	성모회 피정 참가자들	성모회
			생	장현철 엘리야 영육건강	김규철 레오 가정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분당 꾸리아

일시: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엘리사벳방
각 뽀레시디움 4간부는 모두 참석 바랍니다.

2. 교구 재정감사 (정기)

기간: 25일(목)~26일(금) 2일간
장소: 정혜 엘리사벳 성당

3. 2024년도 하반기 사목총회

일시: 28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주요안건: 23-24년 재정결산 및 24-25년 예산보고
참석대상: 모든 사목위원, 모든 구역장 단체장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7월 구역모임

8구역: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요한방
9구역: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5. 단체 활동/피정

사회복지부: 21일(주일)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성모회 피정: 21일(주일) 오전9시-오후4시
Mercy Center Auburn
연령회: 8/4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6. 사랑의 급식 (9구역)

일시: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친교실
메뉴: 황태콩나물국 가격: \$5/1인
도네이션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도네이션)

김영준 사도요한: 리노공소 (\$545)- 고추도네이션
사랑의 급식(셋별Pr) 수익금: \$602 (도네이션포함)
사랑의급식 도네이션: \$500
(송돈희, 진엘리사, 유정임, 이해련, 익명 각\$100)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감사해요
사랑의 급식용 고추(김영준), 깻잎(김일주)

8. YMCA Camp Campbell (Summer Camp for Teens)

목적: 가톨릭 고등학생 치유.회복 캠프 참가
일시: 26일(금)~28일(주일) YMCA of the Redwoods
참가자: 김태빈(노아) 오이석(모세) 오은수(그레이스)
황건영(파비아노) 정우영(알베르토) 안형준(라파엘)
인솔자: James Kwon (권오승)
참가자들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9. 서중부 여성 제15차 꾸르실료 3박4일 참가

기간: 8/1(목)~8/4(주일) 3박4일
장소: St.Clare Retreat (2381 Laurel Glen Rd)
참가자: 박희현 세실리아, 김진영 마르타
김선영 플로라, 윤영자 마리아 (총4명)
이상 순종 사랑의 마음으로 은총의 시간 되시기
바라며,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0. 제28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8/10일(토) 오전8:30~오후6:00
참가신청마감: 8/4일(주일) 까지
장소: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강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장
주최: 북가주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지도신부: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참가비: \$25 (Check 발행시: KSCNC) 점심.저녁제공
신청/문의: 김은영 폴리나 (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 스마일마켓쿠폰: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쿠폰이용금액의 15%가 본당재정으로 충당됩니다.)

<< 주일학교 >>

주일학교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 바랍니다.

화답송



주님 - 은 나의 목 - 자 아쉬울 것 없 어 라

전례봉사	연중 제16주일 (7/21)	연중 제17주일 (7/28)	연중 제18주일 (8/4)	연중 제19주일 (8/11)
미사해설	김선식 / 조용주	지혜진 / 김진영	박문교 / 정미정	김선식 / 이해련
복 사	송돈희 / 권오승	지마리 / 임가빈 박지은 / 최준우	허준희 / 지마리 송돈희 / 윤지현	황건영 / 임가빈 김규철 / 박지은
헌금위원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뽕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2110 Broadway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CHEZ JULIA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